

“근대문화유산 활용 원도심 살린다”

목포시가 지역에 산재한 근대 문화 유산 등을 활용해 문화예술 향기나 도시 조성에 나섰다.

목포시는 최근 시청상황실에서 ‘역사문화의 길’ 조성 기본계획 수정을 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은 역사 문화자원의 가치 제고를 통해 원도심 정체성 회복을 도모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원도심 재생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목포 ‘역사 문화의 길’ 조성사업은 크게 ▲북교동 ▲오거리 ▲개항장 구역 등 3개 구역별로 추진된다.

이날 보고회에서 용역사인 희망제작소 측은 구 일본 영사관을 중심으로 한 개항장 구역은 구 일본 영사관과 하부 국도 1·2호선 기점과 어린이 놀이터를 역사공원화해 근대 역사관

■ 목포 ‘역사문화의 길’ 조성 용역 중간 보고회

북교동·오거리·개항장 3개구역 나눠 추진

과 나상수 가옥의 공간 흐름을 연결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근대 역사관의 주차장 전면부를 휴게공간이나 공원으로 조성해 나상수 가옥의 담을 헐고 야외에서 차를 마시면서 근대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된다.

또 개항장 길 주변은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운영해 쇠락한 지역공간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거리 구역은 창고군과 주변 근대 건축물과 빙집을 활용한 문화예술 지

원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김영자 갤러리를 거점으로 오거리 미술전시 중심의 공간과 공연·연출 중심의 창고 군을 이어주는 문화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좁은 입구를 통해 들어오는 공터는 방문자들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해 이색적인 장소를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신안군청 주변의 북교동 구역은 유휴 공간이 될 신안군청을 녹지 공간 및 평생학습 공간으로 활용하고, 지

역주민을 위한 녹지와 문화예술 학습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구 청년회관과 문화의 집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연계하고, 전통 한옥과 기증 등록문화재를 보존해 장기적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원도심의 건물 활용 계획과 관련, 크게 오거리 위쪽과 아래쪽 지역으로 나뉘 위쪽은 신안군청을 거점으로 사회적기업을 지원·육성하고, 아래쪽은 김영자 갤러리를 거점으로 문화예술을 통한 창조산업을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이를 통해 원도심 활성화와 원도심내 거리 활성화를 도모하고, 건물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부취재본부=임영준기자 lyc@



진도 소포마을 ‘검정쌀 축제’

진도군 지산면 소포마을 주민들이 지난 17일 열린 ‘제6회 소포 검정쌀 축제’에서 강강술래를 선보이고 있다. 이번 축제에서는 검정쌀 친환경 농업 현장체험을 비롯해 진도 고유의 전통 민속공연이 풍성하게 펼쳐졌다.

〈진도군 제공〉



함평군 여름철 전염병 예방 총력
함평군 방역차량이 최근 함평 5일 시장에서 연막소독을 하고 있다. 군은 7~9월을 집중 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전염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부취재본부=황운학기자 hwang@

세 얼굴

‘레저·관광 거점으로 육성’

정 창 원 목포 항만청장



“전국 3대 항만중 하나인 목포 항을 레저·관광항만 등 다양한 주제로 발전시키고 지역발전을 위해 혁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6일 취임한 정창원(57) 목포 지방해양항만청 장은 “신 속하고 친절한 일처리를 통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원활한 하계피서객 수송과 해상교통 안전확보 등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익산 출신인 정 창장은

이리 남성 고와 한국 해양대학 교 대학원 (통상행정 학)을 졸업했으며 여수항만청 여전총장으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역임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한복순씨와 사이에 1남2녀가 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목포 해양문화축제 30일 ‘팡파르’

음악 분수 가동…바다 콘서트 등 행사 풍성

5일간 평화광장 일대

‘2010 목포 해양문화축제’가 오는 30일부터 5일간 목포 평화 광장 일대에서 열린다.

‘해양의 꿈 미래로! 목포의 빛 세계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여름밤을 배경 삼아 다채롭고 현란한 빛의 조명을 받은 각양각색의 해양문화 콘텐츠를 실은 배들의 행진과 공연이 펼쳐진다.

특히 축제기간동안 야간에는 해양 음악분수 ‘춤추는 바다분수’가 가동돼 아름다운 광경을 선사한다.

배 형상을 한 바다분수는 길이 135m·폭 60m로, 최고 70m까지

쏘아 올릴 수 있으며 클래식 음악에 맞춰 물줄기를 쏘아 올려 멋진 형상을 만들어 내게 된다.

또 축제 첫날 해군 군악대의 공연을 시작으로 춤추는 바다 분수 쇼와 함께 개막 해상 카니발이 여름 축제의 서막을 알리고 국제 자매도시인 중국 사먼시 해양문화 예술팀이 참여하는 ‘아시아 섬 페스티벌’이 펼쳐진다.

이 밖에도 세계 최정상 비보이 팀들과 만날 수 있는 ‘2010 코리아 비비오 올스타즈 목포 페스티벌’을 비롯해 ▲평화바다 청소년 페스티벌 ▲바다 콘서트 ▲전국 윈드서핑 대회 등 즐길거리가 풍성하다.

5일간 평화광장 일대에서는 해양 음악분수 ‘춤추는 바다분수’가 가동돼 아름다운 광경을 선사한다.

배 형상을 한 바다분수는 길이

135m·폭 60m로, 최고 70m까지

쏘아 올릴 수 있으며 클래식 음악에 맞춰 물줄기를 쏘아 올려 멋진 형상을 만들어 내게 된다.

또 축제 첫날 해군 군악대의 공연을 시작으로 춤추는 바다 분수 쇼와 함께 개막 해상 카니발이 여름 축제의 서막을 알리고 국제 자매도시인 중국 사먼시 해양문화 예술팀이 참여하는 ‘아시아 섬 페스티벌’이 펼쳐진다.

이 밖에도 세계 최정상 비보이 팀들과 만날 수 있는 ‘2010 코리아 비비오 올스타즈 목포 페스티벌’을 비롯해 ▲평화바다 청소년 페스티벌 ▲바다 콘서트 ▲전국 윈드서핑 대회 등 즐길거리가 풍성하다.

5일간 평화광장 일대에서는 해양 음악분수 ‘춤추는 바다분수’가 가동돼 아름다운 광경을 선사한다.

배 형상을 한 바다분수는 길이

135m·폭 60m로, 최고 70m까지

쏘아 올릴 수 있으며 클래식 음악에 맞춰 물줄기를 쏘아 올려 멋진 형상을 만들어 내게 된다.

또 축제 첫날 해군 군악대의 공연을 시작으로 춤추는 바다 분수 쇼와 함께 개막 해상 카니발이 여름 축제의 서막을 알리고 국제 자매도시인 중국 사먼시 해양문화 예술팀이 참여하는 ‘아시아 섬 페스티벌’이 펼쳐진다.

이 밖에도 세계 최정상 비보이 팀들과 만날 수 있는 ‘2010 코리아 비비오 올스타즈 목포 페스티벌’을 비롯해 ▲평화바다 청소년 페스티벌 ▲바다 콘서트 ▲전국 윈드서핑 대회 등 즐길거리가 풍성하다.

5일간 평화광장 일대에서는 해양 음악분수 ‘춤추는 바다분수’가 가동돼 아름다운 광경을 선사한다.

배 형상을 한 바다분수는 길이

135m·폭 60m로, 최고 70m까지

쏘아 올릴 수 있으며 클래식 음악에 맞춰 물줄기를 쏘아 올려 멋진 형상을 만들어 내게 된다.

또 축제 첫날 해군 군악대의 공연을 시작으로 춤추는 바다 분수 쇼와 함께 개막 해상 카니발이 여름 축제의 서막을 알리고 국제 자매도시인 중국 사먼시 해양문화 예술팀이 참여하는 ‘아시아 섬 페스티벌’이 펼쳐진다.

이 밖에도 세계 최정상 비보이 팀들과 만날 수 있는 ‘2010 코리아 비비오 올스타즈 목포 페스티벌’을 비롯해 ▲평화바다 청소년 페스티벌 ▲바다 콘서트 ▲전국 윈드서핑 대회 등 즐길거리가 풍성하다.

5일간 평화광장 일대에서는 해양 음악분수 ‘춤추는 바다분수’가 가동돼 아름다운 광경을 선사한다.

배 형상을 한 바다분수는 길이

135m·폭 60m로, 최고 70m까지

쏘아 올릴 수 있으며 클래식 음악에 맞춰 물줄기를 쏘아 올려 멋진 형상을 만들어 내게 된다.

또 축제 첫날 해군 군악대의 공연을 시작으로 춤추는 바다 분수 쇼와 함께 개막 해상 카니발이 여름 축제의 서막을 알리고 국제 자매도시인 중국 사먼시 해양문화 예술팀이 참여하는 ‘아시아 섬 페스티벌’이 펼쳐진다.

이 밖에도 세계 최정상 비보이 팀들과 만날 수 있는 ‘2010 코리아 비비오 올스타즈 목포 페스티벌’을 비롯해 ▲평화바다 청소년 페스티벌 ▲바다 콘서트 ▲전국 윈드서핑 대회 등 즐길거리가 풍성하다.

5일간 평화광장 일대에서는 해양 음악분수 ‘춤추는 바다분수’가 가동돼 아름다운 광경을 선사한다.

배 형상을 한 바다분수는 길이

135m·폭 60m로, 최고 70m까지

쏘아 올릴 수 있으며 클래식 음악에 맞춰 물줄기를 쏘아 올려 멋진 형상을 만들어 내게 된다.

또 축제 첫날 해군 군악대의 공연을 시작으로 춤추는 바다 분수 쇼와 함께 개막 해상 카니발이 여름 축제의 서막을 알리고 국제 자매도시인 중국 사먼시 해양문화 예술팀이 참여하는 ‘아시아 섬 페스티벌’이 펼쳐진다.

이 밖에도 세계 최정상 비보이 팀들과 만날 수 있는 ‘2010 코리아 비비오 올스타즈 목포 페스티벌’을 비롯해 ▲평화바다 청소년 페스티벌 ▲바다 콘서트 ▲전국 윈드서핑 대회 등 즐길거리가 풍성하다.

5일간 평화광장 일대에서는 해양 음악분수 ‘춤추는 바다분수’가 가동돼 아름다운 광경을 선사한다.

배 형상을 한 바다분수는 길이

135m·폭 60m로, 최고 70m까지

쏘아 올릴 수 있으며 클래식 음악에 맞춰 물줄기를 쏘아 올려 멋진 형상을 만들어 내게 된다.

또 축제 첫날 해군 군악대의 공연을 시작으로 춤추는 바다 분수 쇼와 함께 개막 해상 카니발이 여름 축제의 서막을 알리고 국제 자매도시인 중국 사먼시 해양문화 예술팀이 참여하는 ‘아시아 섬 페스티벌’이 펼쳐진다.

이 밖에도 세계 최정상 비보이 팀들과 만날 수 있는 ‘2010 코리아 비비오 올스타즈 목포 페스티벌’을 비롯해 ▲평화바다 청소년 페스티벌 ▲바다 콘서트 ▲전국 윈드서핑 대회 등 즐길거리가 풍성하다.

5일간 평화광장 일대에서는 해양 음악분수 ‘춤추는 바다분수’가 가동돼 아름다운 광경을 선사한다.

배 형상을 한 바다분수는 길이

135m·폭 60m로, 최고 70m까지

쏘아 올릴 수 있으며 클래식 음악에 맞춰 물줄기를 쏘아 올려 멋진 형상을 만들어 내게 된다.

또 축제 첫날 해군 군악대의 공연을 시작으로 춤추는 바다 분수 쇼와 함께 개막 해상 카니발이 여름 축제의 서막을 알리고 국제 자매도시인 중국 사먼시 해양문화 예술팀이 참여하는 ‘아시아 섬 페스티벌’이 펼쳐진다.

이 밖에도 세계 최정상 비보이 팀들과 만날 수 있는 ‘2010 코리아 비비오 올스타즈 목포 페스티벌’을 비롯해 ▲평화바다 청소년 페스티벌 ▲바다 콘서트 ▲전국 윈드서핑 대회 등 즐길거리가 풍성하다.

5일간 평화광장 일대에서는 해양 음악분수 ‘춤추는 바다분수’가 가동돼 아름다운 광경을 선사한다.

배 형상을 한 바다분수는 길이

135m·폭 60m로, 최고 70m까지

쏘아 올릴 수 있으며 클래식 음악에 맞춰 물줄기를 쏘아 올려 멋진 형상을 만들어 내게 된다.

또 축제 첫날 해군 군악대의 공연을 시작으로 춤추는 바다 분수 쇼와 함께 개막 해상 카니발이 여름 축제의 서막을 알리고 국제 자매도시인 중국 사먼시 해양문화 예술팀이 참여하는 ‘아시아 섬 페스티벌’이 펼쳐진다.

이 밖에도 세계 최정상 비보이 팀들과 만날 수 있는 ‘2010 코리아 비비오 올스타즈 목포 페스티벌’을 비롯해 ▲평화바다 청소년 페스티벌 ▲바다 콘서트 ▲전국 윈드서핑 대회 등 즐길거리가 풍성하다.

5일간 평화광장 일대에서는 해양 음악분수 ‘춤추는 바다분수’가 가동돼 아름다운 광경을 선사한다.

배 형상을 한 바다분수는 길이

135m·폭 60m로, 최고 70m까지

쏘아 올릴 수 있으며 클래식 음악에 맞춰 물줄기를 쏘아 올려 멋진 형상을 만들어 내게 된다.

또 축제 첫날 해군 군악대의 공연을 시작으로 춤추는 바다 분수 쇼와 함께 개막 해상 카